

경기침체에... '꼬마 먹거리' 잘 나간다

식품·유통업계, 작고 실속있는 상품 잇단 출시

1인가구 증가로 꼬마김밥·소형피자 등 인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식품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작고 실속있는 상품들이 인기다.

1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1인 가구도 늘면서 '소형화'가 대세를 이루고 관련 상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맨 알뜰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고 재료 값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이 메뉴 소형화로 원가를 낮춰 마진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먹거리. 김밥

과 피자, 음료 등 '꼬마'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용량을 줄이면서 영양을 높인 김밥 체인점이 성행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가격을 낮춘 '소형 피자'와 '조각 피자', '작은 치킨볼' 등 메뉴 소형화로 고객들의 새로운 트렌드에 눈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풍부한 양과 높은 칼로리로 승부했던 패스트푸드 업계가 변화할 시도 중이라고 분석했다.

음료제품의 소형화 경향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코카콜라사의 사이드바랜드 '스프라이트'는 180ml나 300ml 용량의 작은 음료들이 '꼬마 음료'로 불리며 잘 나가고 있고 일부 주점에서는 기존 500ml 생맥주 외에 300ml 메뉴를 신설, 판매하고 있다.

유통업계도 1인 가구의 증가세에 발맞춰 용량과 포장을 새롭게 바꾸고 고객의 기호에 답하고 있다.

사분의 일 두부, 6구 계란 등 부피와 용량을 줄인 소용량 식품 출시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부터 대과·마늘·양파 등 야채류를 소포장한 '990원 소포장제' 판매가 인기다.

포도, 파인애플 등 변색이 덜 되는

과일 위주로 판매되는 소용량 과일도 호응도가 높다.

보통 20kg으로 판매되었던 쌀 역시 10kg로 소포장된데 이어 3kg와 5kg이 나왔으며 종류도 다양해졌다.

대표적인 소형 구입 매장이 편의점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소포장 곡류, 미니 와인, 1인용 반찬, 도시락 등 '소포장·소용량 상품'을 확대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인가구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주력, 가전, 생활용품 등 소비시장 전반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심골직을 대상으로 한 소형화 제품의 인기는 단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점장과 함께 현장 중심 마케팅 김장학 광주은행장이 지난 8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영업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점장 150여명이 참석한 '지점장과 함께'하는 행사를 갖고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주문했다. <광주은행 제공>



동부대우전자,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출시 동부대우전자는 11일 국내 최대 소비전력 및 최소형 크기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102ℓ 1도어)를 출시했다. 싱글족과 소형가구를 겨냥한 이 제품은 기존 대형 김치냉장고와 비교해 4분의1 크기여서 공간효율성이 뛰어나다. <동부대우전자 제공>

저소득층 생활안정수단 된 '주택연금'

광주·전남 가입자 전년비 24% 증가

'주택연금'이 가입조건 완화로 광주·전남의 하우스푸어나 조기 은퇴자 등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주택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2007년과 이듬해인 2008년도에 각각 15명과 19명에 그쳤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해 10월 현재 총 438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말 현재 126명이 신규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101명) 대비 가입자가 24.7%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 부채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사전가입

주택연금을 출시했고, 지난 8월 1일에는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조학현 지사장은 "가입조건 완화와 더불어, 작년 하반기 이후 지역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가입 시기를 관망 하던 어르신들의 문의가 꾸준하여 가입증거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전가입 주택연금=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것으로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규 승무사원 모집
금호고속

금호고속이 21일까지 신규 승무사원을 모집한다.

1종 대형면허를 3년 이상 소지하고, 버스운전자격(교통안전공단)을 취득해야 가능하며 버스운전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무사고 기간 또한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금호고속 홈페이지(www.kumbuslines.c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서류는 광주 유·스퀘어 금호고속 사무실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문의 (062-360-8105).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현대·기아차 누적생산 8천만대 돌파

자동차 생산 50년만에... 아반떼 가장 많이 출시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한 완성차가 8000만대를 넘어섰다. 기아차가 1962년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국내 최초의 3륜 화물차인 'K-360'을 생산한 지 50여년 만이다.

현대·기아차는 11일 두 회사 창사 이래 10월까지 국내 및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대수가 80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창사 이듬해인 1968년 울산공장에서 코티나를 생산하면서 완성차 제조를 시작했고, 기아차는 1962년 K-360으로 자동차 생산에 뛰어들었다.

현대·기아차가 누적생산 1000만대를 돌파한 것은 1993년으로, 개시 이래 30여년 만이었다. 그러나 2000만



2년도 안돼 8000만대 고지에 올라섰다.

8000만대는 현대차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아반떼'(전장 4550mm·전폭 1775mm)를 기준으로 삼아 한 줄로 세울 경우 36만4000km에 달하며 지구를 9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차를 펼쳐 놓으면 면적이 646.1km에 달해 서울시(605km)를 다 덮고도 남는다.

8000만대 중 가장 많이 생산된 모델은 아반떼로 1990년 출시(당시명은 엘란트라) 이후 910만대가 생산됐고, 이어 '쏘나타'가 673만대, '엑센트'가 663만대다.

이런 생산기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8년째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 지위를 지키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세자금 대출 50세 미만 중산층 73%

6월말 현재 60조1000억

2009년말의 2배 육박

현재 60조1000억원으로, 3년 6개월 전인 2009년말(33조5000억원)의 2배에 육박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최상위 20%인 5분위에 나간 전세자금 대출은 약 10조1500억원으로 전체의 16.9%에 그쳤다.

그러나 차상위 20% 계층인 4분위는 22조3600억원(37.2%)에 달했고

중간 20% 계층인 3분위도 16조5300억원(27.5%)을 차지했다.

나머지 약 11조6000억원(18.4%)이 최하위 20%인 1분위와 차하위 20%인 2분위에 돌아갔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조차 소득 하위 계층인 1~2분위의 비중이 29.1%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이 44조1000억원(73.4%)을 빌렸다. 나머지 16조원은 50세 이상에게 대출됐다.

/연합뉴스

| | | | |
|--------------------------|--------------------------|------------------------------|-----------------------------|
| 코스피지수 1977.30 (-7.57) | 코스닥지수 502.94 (-12.80) | 금리 (국고채 3년) 2.96% (+0.07) | 원·달러 환율 1072.50원 (+7.60) |
|--------------------------|--------------------------|------------------------------|-----------------------------|

황칠나라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D&P황칠365 신상품 **황칠시크릿 진액** **기아타이거즈 공식후원상품**

현역력 이빨다더 종을 순 없는데...

용봉점 **여수점** **쌍촌점**

용봉점 광주 북구 용봉동 740-1 062-418-8788

여수점 전남 여주시 좌수영로 372 미평동 1층 061-652-7177

쌍촌점 광주 서구 쌍촌동 948-33 062-375-8233

쌍촌점 광주 서구 쌍촌동 948-33 062-375-8233

여수점 전남 여주시 좌수영로 372 미평동 1층 061-652-7177

화순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42-8 061-375-7188

황칠다남(주)
전남 광흥진 광흥동 해방리 60-3